

## 포스텍, 나노기술 개발에 2명 참여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은 신소재공학과 조문호 교수 연구팀과 화학과 김성지 교수 연구팀이 2007년 과학기술부의 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월12일 발표했다.

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나노분야의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조문호 교수팀 등 5개 연구팀은 최대 6년간 연간 3억원을 지원받는 <핵심중점 분야>에, 김성지 교수팀 등 11개 연구팀은 3년간 연간 1억원까지 지원받는 <창의탐색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조문호 교수팀은 <융합기술을 통한 자기조립 집적형 반도체 나노선 정렬구조 제작 및 분석기술>을, 김성지 교수팀은 <비독성 II-형 양자점과 금 나노막대를 이용한 고효율 친환경 태양전지 개발>을 주제로 연구하게 된다.

<화학저널 2007/06/14>